

지사 메시지

- 오카야마현 지사 이바라기 류타입니다.
- 현내에서는 최근 1주일간에 1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어, 접대행위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호스트 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접대행위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, 젊은 세대에서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젊은이에게 있어 무증상 혹은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,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염확대가 염려되고 있습니다.
- 이를 위해 현민 여러분에게는 한층 더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3가지에 대해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
- 첫째,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불안이 있는 경우나 조금이라도 발열,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찰상담센터로 상담해 주십시오.
- 둘째, 젊은 사람의 대부분은 감염되더라도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. 가족 중에 고령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, 고령자와의 접촉 기회가 있는 분은 특히 신중하게 행동해 주십시오.
- 셋째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구라도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. 가족이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접촉확인 앱 COCOA의 등록을 부탁드립니다.
- 현민 여러분에게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부디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